해외프로그램 인턴 후기글

작성자: 전기정보공학부 20학번 하태윤
인턴 근무지: UT Austin 대학 연구실
인턴 내용: Research Assistant
인턴 기간: 2025.01.10. ~ 2025.04.30.
지원 수혜 내용: 공과대학에서 항공료 보조금 지원

00. 소개

저는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에 재학 중인 하태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24년도 가을학기에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었었고, 교환학생으로서 수학 기간이 끝난 이후 25년도 1월부터 4월까지 동대학 연구실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미국에서 인턴을 구하게 된 제 경험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01. 인턴을 구하게 된 과정

원래 저는 24년도 가을학기 교환학생으로서 수학이 끝나면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관심있는 연구 분야에서 인턴을 모집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비자를 연장하고 인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한 학기 휴학을 하게 되긴 했지만, 미국에서 연구 인턴을 하는 경험은 나중에 커리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큰 고민 없이 진행했습니다.

인턴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관심 있는 연구실을 직접 서치해 교수님께 메일을 드릴 수도 있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office hour에서 눈도장을 찍은 뒤 인턴 의사를 구두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인턴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학교 웹사이트 중 https://eureka.utexas.edu/라는 학부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구 프로젝트 리스트 중 하나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02. 인턴 활동 내용

저는 “2D 물질 생산 자동화 시스템 설계”라는 주제로 인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핀이나 hBN 같은 2D material의 경우 일반적으로 raw material로부터 mechanical peeling process를 거쳐 생산되는데, 이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로봇을 설계하고 제어하는 연구였습니다. 평소에 비전 기반 로봇 제어에 관심이 많던 저로서는 잘 맞는 분야이면서도 색다른 연구 주제였기 때문에 고민 없이 신청했습니다.

제가 갔던 연구실이 신생랩이라, 사수의 지도 아래 연구를 했다기보다 제가 프로젝트를 리드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했던 것이 좀 더 저에게 자유도가 생겨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프로젝트 리더로서 project management 스킬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에 있어 필요한 hard skill 뿐 아니라 international한 환경에서 협업하기 위해 필요한 soft skill도 기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3. 팁

미국에서 정식으로 급여를 받으며 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저처럼 교환학생으로서의 신분이 끝난 뒤 Academic training 프로그램을 통해 인턴을 구해 일을 하시려는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들에 대해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턴을 하려는 곳의 supervisor(랩인턴의 경우 교수님)에게, "이 사람을 정식으로 고용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letter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학교 국제처(UT Austin의 경우 Texas Global) 홈페이지에 해당 letter의 양식이 올라와 있고, 요구하는 내용들을 채우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떤 일을 하게 될지가 letter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해당 직무의 내용이 전공 분야와 align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후 서명받은 letter와 함께 각종 서류들을 학교 국제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제 업무 담당하는 advisor와 따로 약속을 잡아 진행하면 되며, 서류를 제출한 뒤 approval 절차가 끝나면 update된 DS-2019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DS-2019를 새로 발급받고 나면, 미국 내에서 정식으로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기 위해 SSN(Social Security Number) 발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다소 귀찮고 오래 걸리기는 한데, SSN이 발급되기 전이라도 일을 시작할 수는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paperwork는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교환학생 신분으로 연구실 인턴을 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교수님들은 장기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을 원하시지만, 교환학생들은 대부분 한 학기 정도 짧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짧은 기간 내에 본인이 확실하게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어필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니 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일단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만약 인턴을 하고 싶으시면 최대한 미리미리 인턴 자리를 알아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저는 학기가 끝나갈 무렵 급하게 인턴에 지원하고 각종 서류 작업들을 하느라 매우 정신이 없었고 초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도록 빠르게 진행하시기를 바라며, 특히 학기 중에도 학업과 인턴을 병행하고 싶으시다면 교환학생 오기 전부터 미리 준비해서 컨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4. 소감 및 감사의 말

교환학생으로 타지에 와서 다른 나라 학생들과 같이 수업도 듣고 현지 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해외에서 연구 경험을 쌓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연구자들과 협업했던 경험이 앞으로 제 성장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환학생은 정말 좋은 경험이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할 게 많고 복잡하여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OIA, 공과대학 홈페이지에 올라온 선배들의 수학 수기로부터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성함을 모두 언급드릴 수는 없지만 수기를 올려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으니, 혹시 이 글을 읽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어떤 것이든 좋으니 taeyun012@snu.ac.kr로 이메일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과대학으로부터 해외 인턴 항공료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공대 국제협력실 김희선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